

연구논문

## 1692년 세일럼 마녀재판을 통해서 본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종교문화

양정호\*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692년 뉴잉글랜드 세일럼에서 진행되었던 마녀재판에 대하여 미시사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함으로써 17세기 말 뉴잉글랜드의 종교문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1692년 사건 당시의 재판기록, 세일럼 마을의 목회자이던 사무엘 패리스 목사의 설교문, 그리고 교회설립 당시부터 마녀재판 이후까지의 교회 회의록 등의 문서들을 분석하여 마녀재판과 관련된 인간관계의 그물망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뉴잉글랜드의 청교도에 의해서 행해진 마녀재판은 세일럼 교회 안에 있었던 두 집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집단간의 갈등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마술과 마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시대정신과 맞물려 1692년 세일럼에서 ‘마녀’라는 죄목으로 사용되었다.

**주제어:** 세일럼, 마녀재판, 17세기, 종교문화, 뉴잉글랜드

---

\*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교회사학 전공(caritasnine@gmail.com)  
© 2015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서론

교황청에서는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하면서 ‘교회와 과거의 과오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기억과 화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의 5장 3절 ‘진리 수호를 위한 폭력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교회의 자녀들이 참회의 정신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역사의 또 다른 고통스러운 장은, 특히 어떤 세기에, 진리에 봉사한다는 미명 아래 불용과 폭력의 사용마저 묵인하였던 부분입니다. 지극히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서 불의와 폭력을 고발하는데 태만하였던 교회 자녀들의 잘못에도 또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식별력이 부족하였습니다(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0: 115-116).

가톨릭교회가 인정한 과거의 과오들 가운데 특별히 “진리에 봉사한다는 미명 아래 불용과 폭력의 사용마저 묵인하였던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안에서도 ‘진리에 봉사한다는 미명 아래 불용과 폭력’이 행해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 가운데,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의 세일럼(Salem)에서 행해졌던 마녀재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시기가 중세가 아니라 17세기 말이었던 ‘1692년’ 즉 근대라는 점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 마녀재판의 주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던 ‘청교도’라는데 있다. 세일럼 마녀재판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고찰함으로써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사회의 ‘종교문화’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장에서 마녀재판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인 연구들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새롭게 마녀재판을 연구하려는 이유에 대해 설

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1692년 마녀재판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17세기 청교도 사회의 종교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겠다. 마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일럼 마을의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을 17세기 청교도의 신앙체계는 어떤 것이었는지, 당시 청교도는 여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세일럼 마녀재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1692년을 전후로 하여 기록된 세일럼 교회록(Salem Village Church Record Book)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청교도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2. 마녀재판에 대한 연구사 정리<sup>1)</sup>

마녀로 지목되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악마와 결탁한 마녀이거나, 혹은 마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마녀라고 할 수 있을까? 세일럼의 마녀재판이 아직 동시대인들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지기 전에 뉴잉글랜드인들은 마녀로 기소된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당시 마녀재판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마녀재판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녀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코튼 마더(Cotton Mather)는 1693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이로움들』(*The Wonders of the Invisible World*)(Burr, 1914: 205-289에 수록)이라는 책을 통하여 마녀들이 근본적으로 사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

1) 미국에서의 세일럼 마녀박해 연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ill(2000: 213-305)를 참조.

였다. 하지만 곧 마더의 해석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무죄한 피에 대한 유죄 선언’이었다는 주장들이 곧 제기되었다. 보스턴 상인인 로버트 칼렘(Robert Calef)은 1700년에 코튼 마더에 반대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보다 더 많은 경이로움들』(*More Wonders of the Invisible World*)(Burr, 1914: 291-395에 수록)을 저술하였다. 세일럼과 인접해 있는 비버리(Beverly)의 목회자였던 존 해일(John Hale)은 1702년에 『마술의 본성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A Modest Inquiry into the Nature of Witchcraft*)(Burr, 1914: 391-433에 수록)을 써서 마더를 비난하였다.

1867년 차알즈 업튼(Charles Upton)은 『세일럼의 마술: 마술과 그와 유사한 주제에 관한 견해들의 역사』(*Salem Witchcraft, with an Account of Salem Village and a History of Opinions on Witchcraft and Kindred Subject*)에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세일럼 사건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위 마녀에 대한 주된 증인들인 ‘고통받는 소녀들’<sup>2)</sup>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소녀들에 대한 음모론은 일반적인 해석이 되었고, 19세기 역사서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마술이나 마법 혹은 사탄 등을 마녀재판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그 밖의 원인들 즉, 청교도, 소녀들, 히스테리, 병적 증세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역사가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뉴잉글랜드의 정신: 17세기』(*The New England Mind: The Seventeenth Century*)에서 마법행위들을 일탈행위로 보기보다는 식민지 시대의 사회질서와 정신세계의 거대한 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Miller, 1954).

폴 보이어(Paul Boyer)와 스티븐 니센바움(Stephan Nissenbaum)이 공

---

2) 세일럼의 마녀재판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마녀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법에 걸려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12명의 소녀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afflicted gir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동으로 저술한 『세일럼의 빙의(憑依): 마술의 사회적 기원』(*Salem Possessed: The Social Origins of Witchcraft*)에서는 세일럼의 마녀재판을 전통적 삶의 양식과 새로운 삶의 양식 사이의 충돌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상반되는 두 삶의 양식은 곧 세일럼 타운(Salem town)과 세일럼 빌리지(Salem village)의 대립으로 파악하였다(Boyer and Nissenbaum, 1977).

페미니스트 역사가들은 마녀재판을 여성성의 문제와 관련시켜 보고 있다. 캐롤 칼슨(Carol Karlsen)은 『여성의 모습 안에 있는 악마』(*The Devil in the Shape of a Woman*)에서 마녀재판에 있어서 기소가 될 위험성이 가장 많은 여성들로 성공한 비즈니스 여성, 여성 상속자, 미망인, 또는 독신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칼슨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재산상속의 가능성을 지닌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마녀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사회 내 여성의 지위를 말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뉴잉글랜드에서 마녀로 기소된 사람들은 기존체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여성이거나,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 - 교회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교만한 여성들이거나, 또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성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대부분 마녀로 기소된 사람들은 사회의 권력구조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의미에서 신이나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이라고 설명한다(Karlsen, 1987).

지금까지의 세일럼 마녀재판 연구는 마녀재판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사건 당시의 목회자들로부터 오늘날 여성주의 역사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세일럼 마녀재판에 관한 연구는 역사연구와 역사서술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이라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써 역사학의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일럼의 마녀재판 연구를 통하여 마녀재판이 “중세 가톨릭에 의해서 행해진 사건”이라거나, “남성에 의해서 여성에 대하여 행해진 집단적 폭력”이라는 균형을 잃은 시각은 다시금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문화에서 자라난 소녀들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마녀로 기소한 것에서 세일럼의 마녀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세일럼의 마녀재판은 중세가 아닌 근대사의 서장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에 의해서도 행해졌다는 점과 이른바 ‘마법에 걸려 이상한 증세를 보였던 여자 아이들’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마녀로 지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잡다단한 구조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 3. 세일럼 마녀재판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 1) 마술과 마녀의 존재에 대한 믿음

세일럼 마녀재판보다 약 30년이 앞선 시기, 곧 1667년에 영국에서 조셉 글랜빌(Joseph Glanvill)은 『마녀와 마술에 대한 몇가지 철학적 성찰들』(*Some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Touching the Being of Witches and Witchcraft*)이라는 저서에서 기독교 신화에 근거하여 마녀들과 마술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마녀를 부정하는 자는 창조주 자신을 포함한 영의 세계 전반을 부정하는 자이고, 마술에 대한 부정은 무신론에서 비롯되었다”(Glanvill, 1667)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이러한 주장은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심이 깊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하였을 것이다. 코튼 마더(Cotton Mather)의 『마술과 빙의(憑依)에 관한 기억할만한 섭리들』(*Memorable Providences Relating to Witchcraft and Possession*)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 가운데 굿윈(Goodwin) 가족과 관련된 마술의 내용은 뉴잉글랜드 주민들에게 마술의 실재를 믿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1668년 여름 이 어린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는 그들이 잃어버린 천 조각에 대하여 그들의 집안에서 세탁일 하는 여자에게 캐물었다. 이 잃어버린 천 조각은 마술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가져갔을 것이다. 세탁일 하는 여자는 그 마을에서 무시당하고 험담을 좋아하는 늙은 여자의 딸이었다. 그녀의 불쌍한 남편은 죽기 전에, 가끔 그녀에 대하여 그녀는 의심할 것도 없이 마녀라고 불평을 했었다... 재능있는 의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의뢰를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친구 토마스 오크스 박사는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관찰하고는, 이러한 질병의 원인은 지독한 마술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Mather, 1691).

조셉 글렌빌과 코튼 마더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철학자들과 의사들과 목사들이 마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과, 파악하기 힘든 병적인 증상들을 마녀의 마술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가진 사회에서는 마술과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1692년 세일럼 마녀재판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녀의 존재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었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사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들이 기록한 글들의 영향을 받아서 마술과 마법의 존재 뿐만 아니라 마녀의 존재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있던 매사추세츠, 특히 세일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녀와 마법의 존재를 믿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아니, 이미 그들의 시대정신 속에는 마술과 마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마술과 마녀의 존재를 인정하였던 시대정신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 2)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마녀재판에 영향을 준 요소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마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Malleus Maleficarum*)의 출간으로 말미암아 널리 알려지게 된다.<sup>3)</sup> 1486년에 출간된 이 책은 ‘새로운 마술의 성행’과 ‘그것을 억압하기 위해 주어진 심문관들의 권위’를 전 유럽에 선전하게 되었다. 이 책 가운데 1부 6장은 ‘악마들과 결합한 마녀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이 여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sup>4)</sup>

이 책은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장은 마귀, 마법사 또는 마녀, 마술 등에 관한 개념과 역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첫째 장에서는 마술에 쉽게 감염되는 것이 여성의 타고난 특징이라는 설명, 마녀가 되는 방법들과 마녀임을 확인하는 방법들,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경멸, 그리고 여성들이 사탄과 협력하여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다. 둘째 장에서는 다양한 마술의 형식과 효력 등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마녀의 범행과 오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장은 종교재판이나 세속법정에서 마녀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법 운용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이 갖는 특징은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편견과 경멸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편견은 중세의 문헌에서만 아니라 17세기 당시의 문헌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뉴잉글랜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성편견에 대한 사례는 앤 허친슨(Ann Hutchinson)의 사건<sup>5)</sup>과 관련된 재판이다. 다음은 그녀

3)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악마와 마녀, 마술 개념에 대해서는, 주경철(2014)를 참조.

4)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Kramer and Sprenger (1971: 41-48)을 참조.

5) 앤 허친슨의 사례에 대해서는 지면의 제한 때문에 자세히 다룰 수 없어서 독립된 하나의 논문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가 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언급된 1637년 뉴튼 법정에서 있었던 재판 기록이다.

주지사 존 윈드로프: 허친슨, 당신은 메사추세츠주와 이곳 교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곳에 소환되어 왔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위협의 원인이 되는 의견들을 말하고 퍼뜨리는데 큰 몫을 해왔다고 알려진 여성입니다. 또한 당신은 법정이 주의를 주고 불신임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친밀함과 애정을 가지고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된 바로는, 당신은 교회와 목사들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각에 참을만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여성성에 맞지도 않는 것으로 일반 법정에 의해서 정죄 받았던 모임과 집회를 당신의 집에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그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sup>6)</sup>

법정에서 윈드로프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앤 허친슨이 주도한 모임이었다.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 ‘여성성’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여 본다면 실제적인 문제는 ‘모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앤 허친슨의 집에서 가졌던 ‘모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성격’에도 있었다. 주지사는 모임의 지도자가 여성이라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임의 성격이 영적인 모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성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윈드로프의 주장을 통하여 17세기 청교도 사회에 여성이 영적인 모임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만연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판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존 윌슨(John Willson)

6) 메사추세츠 뉴튼(Newton)에서 1637년에 열렸던 앤 허친슨의 재판에 관한 기록은, <http://constitution.org/primarysources/hutchinson.html>(검색일: 2015. 8. 14)를 참조.

목사가 기록한 앤 허친슨(Anne Hutchinson)에 대한 재판 보고서를 통하여서도 청교도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다음은 재판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존 윌슨의 앤 허친슨에 대한 과문선언이다(Hall, 1990).

허친슨 부인 당신은 매우 큰 죄를 범하였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과오들을 가지고 교회를 소란케하고 또 많은 어리석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였고, 당신의 계시들을 변호하였으며, 거짓을 말하였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은 추방될만 하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추방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더 이상 참람된 말을 하거나 유혹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못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이교도와 세리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름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당신이 교회로부터 물러가기를 당신에게 명령한다. 이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식을 멸시하고 저주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이제 당신은 그들과 무관하며 그들로부터 유익이 없기를 바란다.<sup>7)</sup>

위에서 인용한 소환장과 과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가 보스톤 재판정에 소환되고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된 것은 여성의 몸으로 영적인 모임을 주도하여 교회와 사회의 평화를 위협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교회와 사회의 평화를 위협했다는 명분은 여성이 영적인 모임을 주도했다는 것을 감추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교회와 사회의 평화를 위협했다는 것과 여성이 영적인 모임을 주도했다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당시의 청교도 사회가 여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

7) 이 내용은 John Wilson이 작성한 “A Report of the Trial of Mrs. Anne Hutchinson before the Church in Boston”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과문선언이다.

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교회 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영적인 활동이란 온당치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청교도 사회에서 추방된 앤 허친슨의 죄목이 ‘여성으로서 영적인 모임을 주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청교도 사회는 여성의 여성성과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파문장에서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데 있다. 17세기 뉴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앤 허친슨에 대한 재판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 나타나는 중세기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여성이 영적인 모임을 주도할 권리, 곧 영적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단으로 몰아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추방하였다는 점에서 앤 허친슨 사건은 세일럼 마녀재판의 전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술과 마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시대정신과 맞물려 1692년 세일럼에서 ‘마녀’라는 죄목으로 사용되었다.

#### 4. 세일럼 마녀재판을 통해서 본 청교도사회

##### 1) 마녀재판의 개요

1692년에 세일럼에서 있었던 마녀재판은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으로, 마녀의 존재에 대해 믿기를 원했던 시대정신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마침내 수면으로 떠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약 140여명의 사람들이 마녀 재판에 기소된 것으로 보아 세일럼 마

을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것이란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20여 명의 사람들이 폭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19명이 마녀로 판결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고, 한 사람은 재판을 거부하여 압사(壓死)당하였다. 그 외에도 사라 굿(Sarah Good)의 영아를 포함한 5명이 옥중에서 죽었다. 25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의 발단은 소녀들의 이상한 병적 증세에서 시작되었다. 이 소녀들의 증세에 대하여 마을의 의사는 마술에 사로잡혔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1689년 세일럼 빌리지(Salem village)에 부임하였던 사무엘 패리스(Samuel Parris) 목사 역시, 『마술과 병의(憑依)에 관한 기억할만한 섭리들』을 저술한 코튼 마더와 마찬가지로 마녀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 마녀재판이 시작될 무렵인 1692년 3월 27일에 선포하였던 패리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그가 마녀재판을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교 내용은 사무엘 패리스의 설교 노트에 기록된 내용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6장 70절이었다.<sup>8)</sup>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그의 교회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성인들 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 마귀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 마귀들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있습니다. 여기 세가지 사실들이 말해져야 합니다. 마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와 같은 마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들 안에 참된 성인들도 있습니다(Hill, 2000).

마귀와 마녀의 존재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마녀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 설교에서는 마녀 혹은

---

8) “내가 너희들 열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내가 열둘을 선택하고 나와 함께 있게 하였으나 너희들 중의 하나는 마귀이다.”

마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으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9월 11일 설교의 내용에는 마법이라는 용어가 눈이 뜨인다. 이 날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었다.<sup>9)</sup>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전쟁에서 얻게 될 승리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두 편이 있습니다. 한편은 죄를 범하는 편입니다. 말하자면 이것들은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의 협력자들이요, 사탄의 도구들이요, 용에게 선동되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마법과 마술로써 거짓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은 죄를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들은 양과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Hill, 2000).

이 설교문을 통해서 패리스 목사가 마법과 마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세일럼 교회 안에서 마법과 마술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하여 평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비록 ‘마녀’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적그리스도의 협력자들’, ‘사탄의 도구들’, ‘용에게 선동되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표현 등은 ‘마녀’의 또 다른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3월 27일의 설교와 9월 11일의 설교는 세일럼 마을의 목사였던 사무엘 패리스가 마술과 마녀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패리스는 이러한 설교들을 통하여 회중들로 하여금 세일럼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녀재판이 정당한 것이라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9) “저희가 어린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 2) 세일럼 마녀재판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 (1) 가해자인 여성

1692년 세일럼 마녀재판은 발작 증세를 일으켰던 이른바 ‘고통받는 소녀들’이 자신들의 이웃 여성인 사라 굿, 사라 오스본, 티투바를 마녀로 지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이 사건의 가해자는 여성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여성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 고통받는 소녀들 가운데 한 사람의 고백이다. 앤 푸트남은 1706년에 교회 앞에서 마녀박해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잘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1692년에 우리 아버지의 집안에 내려졌던 슬프고 비천한 섭리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때 나는 어린아이였고 그러한 신의 섭리에 의해 나는 여러 사람들을 가혹한 범죄자로 고발하는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겼으며 지금 나는 그들이 무죄한 사람들이었음을 믿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들과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슬픈 시기에 나를 기만한 사탄의 엄청난 미혹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지중에 그리고 무의식중에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피에 대해 나 자신과 이 땅이 받게 될 죄 값에 대해 당연히 두렵습니다. 특정인에 반대하여 나에 의해 말하고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특정인에 대해 어떤 분노나 악의 혹은 나쁜 의도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 중 한사람에 대해 반대하여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고 사탄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스 부인과 그녀의 두 자매들을 고발한 주요한 앞잡이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토록 슬픈 재난을 가져다준 원인이었기에 나는 굴욕 속에 있길 바라며 불쌍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픔과 범죄의 주원인을 제공했기에 그들의 친척관계들이 깨어지고 고발되어진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길 바라며 굴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sup>10)</sup>

‘고통받는 소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사형대로 이끌고 갔던 앤 푸트남이 10여 년이 지난 1706년에 교회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다는 점은 결정적으로 그녀가 가해자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부지중에 그리고 무의식 중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 속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슬픈 재난을 가져다 준 원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든, 혹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이든 자신의 행위가 사탄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앤 푸트남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비록 고통받는 소녀들이 마을 사람들을 마녀라고 고발하면서 원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고-피고를 가해자-피해자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고들 가운데는 소녀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이미 세일럼 마을을 떠나가고 없는 목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린 소녀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마녀 혹은 마법사로 지목할 수 있었던 것이 사탄의 미혹이 아니라, 어른들의 폭력적인 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 (2)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빚어낸 비극

세일럼의 마녀박해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세일럼 사건에서는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에 의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에서 사건이 비롯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 기록을 주목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

10) 이 인용문은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 Salem Witch Trials Documentary Archive and Transcription Project 가운데 일부로서 Documents & Transcriptions 가운데 *Salem Village Church Record Book*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웹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aalem.lib.virginia.edu/villgchurchrcrd.html>(검색일: 2015.8.14).

첫째로, 세일럼 교회록에 1692년 2월 5일 날짜로 기록된 내용이다. 이것을 통하여 마녀재판이 시작되기 전, 마녀 혹은 마술과 관련된 첫 공식 기록에서 집단 간의 갈등을 어렵듯이 찾아볼 수 있다.

마술행위에 관하여 '시인할 수 없는 행위들'이라는 이유로 죄를 범한 세일럼 마을의 교회 형제들 가운데 몇 명은 목사와 교회가 그들을 출석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습관적으로 공중예배와 성만찬에 불참하였다.<sup>11)</sup>

2월 5일이면 공식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이므로, 아직까지는 마녀로 판결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기록자는 마술행위로 범죄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불출석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 일지를 기록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누가 '마녀'이고, 누가 마녀가 아닌지 판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교회출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적'이라는 개념을 키워가고 있었을 것이다.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즉 청교도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적'으로서 '마녀'와 동일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의 적'이 '마녀'로 전이되는 과정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그 적들'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적어도 150가구가 살던 이 마을에서 140명이 마녀로 기소되었고, 20여명이 희생되는 상황에서도 마녀로 지목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둘째로, 1689년 11월 19일 날짜로 기록된 교회록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 기록을 통하여 마녀박해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마녀로 지

---

11) *Salem Village Church Record Book*, <http://salem.lib.virginia.edu/villgchurchrcrd.html> (검색일: 2015.8.14).



목하였던 사람들이 소속된 집단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일럼 마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해 동의되고 승낙된 계약에 따라 1689년 11월 19일에 첫 모임을 가졌다. 여기에 이름이 있는 우리들은 슬퍼하면서 서명하였다.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에 따라 수긍하면서, 잉글랜드 보스턴에서 교회의 본질을 위해 1680년 3월 12일에 모였던 장로들과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동의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사무엘 패리스(Samuel Parris), 나다나엘 푸트남(Nathanell Putnam), 존 푸트남(John Putnam), 브레이 윌킨스(Bray Wilkins), 조슈아 레(Joshua Rea), 나다나엘 잉거솔(Nathanail Ingersoll), 피터 크로이어스(Peter Cloyes), 토마스 푸트남(Thomas Putnam), 존 푸트남(John Putnam Jr.), 에드워드 푸트남(Edward Putnam), 조나단 푸트남(Jonathan Putnam), 벤자민 푸트남(Benjamin Putnam), 에제키엘 쉬버(Ezekiel Cheever), 벤자 윌킨스(Benja Wilkins), 윌리엄 웨이(William Way), 피터 프레스콧(Peter Prescott), 엘리자베스 패리스(Elizabeth Parris, Samuel Parris의 부인), 레베크 푸트남(Rebek Putnam, John Putnam의 부인), 안나 윌킨스(Anna Wilkins, Bray Wilkins의 부인), 사라 레(Sarah Rea, Joshua Rea의 부인), 한나 푸트남(Hannah Putnam, John Putnam Jr.의 부인), 사라 푸트남(Sarah Putnam, Benjamin Putnam의 부인), 사라 푸트남(Sarah Putnam), 딜리버런스 월콧(Deliverance Walcott), 페어시 웨이(Peircy Way, William Way의 부인), 매리 애비(Mary Abbie, Samuel Abbie의 부인).<sup>12)</sup>

이상 16명의 남성과 10명의 여성은 세일럼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부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다. 이들은 마녀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녀로 지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마녀로 지목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무엘 패리스 목사를 청빙하여 세일럼 교회를 세웠던, 최소한 26명은 마녀재판에서 마녀로 기소되지 않았다.

12) *Salem Village Church Record Book*, <http://salem.lib.virginia.edu/villgchurchrcrd.html> (검색일: 2015.8.14).

이들 26명 가운데 토마스 푸트남(Thomas Putnam Jr.)의 딸인 앤 푸트남(Ann Putnam), 조나단 월콧(Jonathan Walcott)의 딸인 메리 월콧(Mary Walcott)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마녀로 지목하는데 열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지목하였는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녀’라는 죄목으로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녀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마녀로 지목하였던 12명의 고통받는 소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사람을 지목하였던 메리 월콧, 앤 푸트남은 세일럼 마을을 처음 설립한 26명의 사람들의 가족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12명의 소녀들과 그들이 속한 집안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고통받는 소녀들과 그들의 보호자

|    | 기소자               | 보호자                      | 지목한<br>사람수 | 사형당한<br>사람수 |
|----|-------------------|--------------------------|------------|-------------|
| 1  | Mary Walcott      | Captain Jonathan Walcott | 43         | 13          |
| 2  | Ann Putnam        | Thomas Putnam, Junior    | 40         | 15          |
| 3  | Mercy Lewis       | Thomas Putnam, Junior    | 34         | 16          |
| 4  | Abigail Williams  | Samuel Parris            | 34         | 13          |
| 5  | Elizabeth Hubbard | Dr. William Griggs       | 33         | 15          |
| 6  | Mary Warren       | John Proctor             | 33         | 10          |
| 7  | Sarah Bibber      | Wenham                   | 15         | 10          |
| 8  | Elizabeth Booth   | Alice Shaflyn            | 12         | 4           |
| 9  | Sarah Churchill   | George Jacobs, Senior    | 4          | 3           |
| 10 | Elizabeth Parris  | Samuel Parris            | 3          | 1           |
| 11 | Susanna Sheldon   | The Widow Sheldon        | 2          | 2           |
| 12 | Jemima Rea        | Daniel Rea               | 1          | 1           |

자료: Boyer and Nissen baun, 1977과 The Church of Christ at Salem Village, 1689-1702에 기초, 필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하면서 정리.

이러한 사실은 처음부터 교회의 자리를 지켜온 이른바 ‘기독교 집단’이 다른 집단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과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은 ‘시대정신’이라는 토양에서 ‘마녀재판’이라는 결과물을 산출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일럼 빌리지의 교회에서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파괴적으로 흘러 버린 것에 대하여 제프리 버튼 러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의 규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던 탓에, 공동체가 논쟁을 조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헐뜯어대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분쟁을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라든가 정치적,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분쟁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을 공동체의 성질 그 자체를 변화시켜 버리는 사투로 간주했다(러셀, 2004).

셋째로, 마녀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9월 17일 사형을 언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레베카 임스(Rebecca Eames), 매리 레이시(Mary Lacy), 앤 포스터(Ann Foster), 그리고 아비가일 홉스(Abigail Hobbs)는 자백을 했고, 그 결과 이들은 희생되지 않았다. 그보다 앞서, 3월에 마녀라고 자백한 티투바 역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에서 마녀로 자백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다는 점은 세일럼 마녀재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청교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마녀를 제거하는 것이 마녀재판의 목적이었다면, 마녀라고 자백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언하며 놓아주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마녀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마녀이든 아니든, 반대로 마녀라는 사실을 부인한 사람이 마녀이든 아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마녀를 없애는 것이 중요했다면 중세와 같이 마녀라고 기소된 사

람은 모두 다 처형되어야했기 때문이다. 마녀로 인정한 사람을 살려두었다는 점은 교회의 권위와 재판정의 권위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 즉 기독교 집단의 우위를 인정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 ‘마녀’의 눈에 비친 17세기 말 뉴잉글랜드의 청교도사회

71세의 나이에 10대 소녀에 의해서 마녀로 지목된 레베카 너스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마녀로 지목하는 대신에 자신의 결백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장한 결과 마녀라는 죄목으로 사형이 언도되었을 때 자신이 서 있는 법정이 진리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녀에게는 진리가 살아 있는 곳이 되지는 못하였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목사와 그에 가까운 세력에게 동조하지 않아서 ‘공동의 적’이 되어버린 ‘마녀’들은 이제 고문을 가하거나 교수형에 처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교회와 목사뿐만 아니라 재판정과 판사들에 대해서도 불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미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소녀들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자 판결을 반복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일은 누가 보아도 정당한 판결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군중들에게 자신은 무고하게 죽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죄악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 함께 주기도문을 낭송하자고 제의하면서 먼저 주기도문을 낭송하고 처형당한 ‘마녀’가 있었다. 갈로우 언덕(Gallow Hill)의 교수대에 서 있던 이 ‘마녀’는 바로 마을의 전직 목사인 조지 버로우였다. 그가 주기도문을 열렬하고도 완벽하게 암송함으로써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켰다. 마녀는 주기도문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존경받는 노부인이었던 레베카 너스와 청교도 목사로서 ‘마녀’로 몰려 교수대에 매달린 조지 버로우의 눈

에 비친 청교도 사회는 더 이상 존 윈스롭이 꿈꾸던 ‘언덕 위의 도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 5. 결론

17세기 뉴잉글랜드에서 마녀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당시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가 갖는 종교문화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1692년에 갑자기 마녀재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1692년의 조건들을 결정 지었다고 파악하였다. 그 조건들이란 여성에 대한 편견, 마술과 마녀의 존재에 대한 믿음, 사회구조의 변화, 집단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조건들이었다. 세일럼 마녀박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밝히고,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록과 재판기록을 대조해가며 세일럼 마을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망도 복원하였다. 이 관계망을 복원함으로써 ‘고통받는 소녀들’이 세일럼 마을 교회를 세웠던 가족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과, 마녀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들과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서, 이 사건은 사회적·심리적 갈등과 집단 간의 갈등에서 출발한 복잡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고통받는 소녀들이 이웃을 마녀로 기소한 가해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세일럼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사회적·심리적 갈등과 집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마녀재판을 통해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며, 결코 마녀들을 처형한 사건이 아니었다.

마녀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종교문화는 서로 다름에 대한 불관용, 신앙 공동체 이상과 현실과의 갈등,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마녀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특 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존 윈스롭은 ‘형제와 같은 애정으로 서로를 대접 하는’ 사회를 희망하였으나, 세일럼 마을은 ‘원수와 같은 증오로 서로를 마 녀로 고발하는’ 사회가 되었다. ‘모든 온유함, 친절함, 인내와 넓은 도량으 로 서로서로 기뻐하며 다른 사람의 조건을 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를 꿈꾸었으나,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편협함으로 자신과 다른 신앙 을 가진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 제거하는’ 현실이 되었다. ‘평화의 띠로 하 나가 되는’ 사회를 그렸으나,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가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용과 대화의 노력,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 쟁’, ‘이단 재판’, ‘마녀박해’ 등의 아픈 과거를 만들었다. 세일럼의 사건도 다름 아닌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과 폭력의 사용이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일럼의 마녀재판과 같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기 를 원치 않는다면 고대 교부 락탄티우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종교 안에서만은 자유는 참다운 진리를 갖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지 키지 않으면 안 된다. 타인을 죽임으로써가 아닌,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 써. 만약 당신들이 피와 고문과 못된 것으로 그리스도교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럽 히고 해치는 것이다(쓰네오, 2000: 24).

## 참고문헌

- 리셀, 제프리 버튼(2004), 『마녀의 문화사』, 김은주 옮김, 서울: 다빈치,  
Russell, J. B.(1980), *A History of Witchcraft: Sorcerers, Heretics,  
and Pagans*, London: Thames and Hudson.
- 쓰네오, 모리시마(2000), 『마녀사냥: 중세 유럽을 강타한 인류 사회의 치  
욕의 문화사』, 서울: 현민시스템, 森島恒雄(1970), 『魔女狩り』, 東京:  
岩波書店.
- 주경철(2014),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악마와 마녀, 마술개념”, 『서양  
사연구』, 제51집, 215-245쪽.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2000),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15호』,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 Boyer, P. and S. Nissenbaum(eds.)(1977), *Salem Witchcraft Papers:  
Verbatim Transcripts of the Legal Documents of the Salem  
Witchcraft Outbreak of 1692*, New York: Da Capo Press.
- Burr, G. L.(ed.)(1914), *Narratives of the Witchcraft Cases, 1648-1706*,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Calef, R.(1700), *More Wonders of the Invisible World*, in *Narratives of  
the Witchcraft Cases, 1648-1706*, ed. G. L. Burr(1914),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p. 291-395.
- Hale, J.(1702), *A Modest Inquiry into the Nature of Witchcraft*, in  
*Narratives of the Witchcraft Cases, 1648-1706*, ed. G. L. Burr(1914),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p. 397-433.
- Hall, D.(1990), *The Antinomian Controversy, 1636-1638: A  
Documentary Histo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Hill, F.(2000), *The Salem Witch Trials*, New York: Da Capo Press.
- Karlsen, C.(1987), *The Devil in the Shape of a Woman: Witchcraft in Colonial New England*, New York: Vintage Books.
- Kramer, H. and J. Sprenger(1971), *Malleus Maleficarum*, trans. by M. Summer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 Mather, C.(1693), *The Wonders of the Invisible World*, in *Narratives of the Witchcraft Cases, 1648-1706*, ed. G. L. Burr(1914),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p. 205-289.
- Miller, P.(1954), *The New England Mind: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 Glanvill, J.(1667), *Some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Touching the Being of Witches and Witchcraft*, <http://quod.lib.umich.edu/cgi/text/text-idx?c=eebo;idno=A42832>(검색일: 2015.8.14).
- Mather, C.(1691), *Late Memorable Providences Relating to Witchcraft and Possessions*, [http://law2.umkc.edu/faculty/projects/frtrial/salem/ASA\\_MATH.HTM](http://law2.umkc.edu/faculty/projects/frtrial/salem/ASA_MATH.HTM)(검색일: 2015.8.14).
- The Church of Christ at Salem Village(1689-1702), *Salem Village Church Record Book*, from the University of Virginia Library Special Collections of "Salem Witch Trials", <http://salem.lib.virginia.edu/villgchurchrcrd.html>(검색일: 2015.8.14).

(논문 투고일: 2015.09.30, 심사 확정일: 2015.11.19, 게재 확정일: 2015.11.27)



〈Abstract〉

## The Religious Culture of the 17th Century New England Purita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alem Witch Trials of 1692

Yang, Jeongho\*

This study aims at re-constructing the religious culture of the 17th century New England puritans with the historiographical methodology of micro-history on the Salem Witch Trials of 1692. Three kinds of historical documents will be examined: the 1692 Salem Witch Trial records; the Salem Church records; and the sermon notes of Samuel Parris of the Salem church. This study will show that the Salem Witch Trials were executed by the 17th century puritans of New England and the tragedy was derived from enmity between two groups in the Salem church. The 17th century New England puritans did not accept difference and diversity, so that enmity within the Salem church resulted. Moreover, the negative thoughts on women and the faith in magic and witchcraft generated the witch trial within the religious culture of 17th century New England.

**Key words:** Salem, witch trial, religious culture, 17th century, New England

---

\* Adjunct Professor of Church History, Graduate School of Mission and Theology, Jeonju University

